

“백분위로 단순 지원 금물… 대학별 반영비중 파악해야”

수능 D-9… 정시모집 두달 앞으로

정시모집, 수능 100% 적용해도 대학별 산정방식 따라 편차 커 절대평가 영어·한국사 주의 반영방식 파악하고 전략짜야

오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내달 5일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자신의 영역별 점수와 대학별 수능 점수 반영 방식에 따른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9일~2019년 1월 3일까지 중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수시모집에선 학생부 성적과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등 대학별 고사 성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유불리가 바뀌지만, 정시모집은 수능 100%를 적용해도 대학별 점수 산정 방식에 따른 편차가 커 수험생들의 전략적인 대입 지원이 필요하다. 수능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수능 점수는 낮지만 행운을 거머쥐는 수험생이 나오는 건 이때문이다.

수능 성적을 적용할 때 대학마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서로 다른 지표를 활용한다. 또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를 파악해 정시 지원 대학을 파악하는 전략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필요하다.

◆수능 활용 지표에 따라 유불리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는다.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학생의 성적을 알려준다. 대학은 이런 수능 성적표를 대학마다 다르게 활용한다. 대다수 대학은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활용해 학생의 성적을 산출한다. 표준점수는 백분위에 비해 좀처럼 분포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표준점수 상으로는 1점 차이라고 해도 백분위로는 차이가 없거나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생긴다.

예컨대 2018학년도 수학가형 원점수 96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는 126점,

백분위는 99였고, 원점수 93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는 124점이었으나 백분위는 99로 동일했다. 반대로 생활과 윤리 원점수 47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 61점, 백분위는 88점이었으나 원점수 46점인 학생의 표준점수는 60점, 백분위는 82로 표준점수에 비해 백분위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대학간 유불리가 달라진다.

상위권 대학은 대체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로,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탐구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해 학생의 성적을 재산출한다. 반면 국민대, 단국대, 성신여대 등은 국어, 수

학, 탐구 영역 모두 백분위를 활용하고, 상명대, 홍익대 등 일부 사립대와 공주고대, 서울고대 등 일부 고대, 충남대, 충북대 등 일부 지방 거점국립대학은 표준점수만 활용한다.

◆영어 등급간 점수차 등에 따라 차이 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 영어도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 영역처럼 일정 비율로 반영해 활용하는 대학이 대다수지만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같은 상위권 일부 대학의 경우는 타 영역으로 총점을 계산한 후 영어 등급에 따른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서울대의 경우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2점에 불과해 영어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력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영어 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은 대학도 있다. 삼육대 전 모집단위와 성신여대 자연계열 일부 학과와 경우 수능 영역 중 3개 영역만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높은 비율로 활용할 수 있다. 또 4개 영역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여대 인문계열, 성신여대 일부 학과가 영어 반영 비율이 30%로 높은 편이다.

또 영어 반영 방식 중 등급간 점수 차이도 중요하다. 1등급에 100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점수차이를 보면 연세대와 숙명여대의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5점이지만, 서강대는 1등급과 2등급 차이

가 1점, 성균관대(자연)와 한양대(자연)의 경우에는 동일 등급간 차이가 2점에 불과해 변별력이 거의 없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대다수 대학은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개 영역 성적을 활용한다. 하지만 각 영역의 반영비율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별 성적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교 군을 설정하고 해당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를 비교해 보면, 탐구영역의 반영 비율은 성균관대(자연) 35%, 한양대(자연) 35%, 한양대(인문) 30%, 성균관대(인문) 20%, 서강대(인문, 자연) 18.75% 순으로 높다. 수학 반영 비율의 경우는 서강대(인문, 자연) 46.875%, 성균관대(인문, 자연) 40%, 한양대(자연) 35%, 한양대(인문) 30% 순이다. 이런 반영 비율의 차이로 인해 탐구의 성적이 수학에 비해 뛰어나다면 한양대가, 그 반대로라면 서강대 지원이 유리할 수 있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성취한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시 지원 시에는 단순히 수능 총점이나 백분위 평균을 계산해 정시 지원 전략을 짜기보다 대학별 점수를 산출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고려대 오늘부터 이틀간 ‘韓-獨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명순구)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한국 사무소 슈테판 잠제 소장),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와 공동으로 6일과 7일 양일간 고려대에서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헌법재판과 헌법국가’를 주제로 법과 정치 사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9일까지 ‘모빌리티 인문 페스티벌’

건국대는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원장 신인섭)이 5~9일까지 인문주간으로 선정하고 사진전, 북콘서트, 명사초청특강 등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기획, ‘모빌리티 인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유자은 이사장, 건국대 민상기 총장, 박창규 상허교양대학장,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진지부 부회장 정지용 작가, 임찬용 민속박물관 전통문화지도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첫날인 5일(9시~17시)에는 상허기념 도서관에서 모빌리티 콘텐츠 전시회가



진행되고, 6일(오후 2시~16시)은 KU시네마테크에서 북콘서트가, 7일(14시)에는 법학관 5층 국제회의장에서 스피치 콘테스트, 8일(15시~16시30분)에는 법학관 5층 국제회의장에서 명사초청강연회가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일(15시~17시)에는 행정관 앞 황소상에서 워킹 모빌리티 건국대 탐방이 시작된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세종연구원 8일 세종호텔서 ‘세종포럼’ 열어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세종연구원(이사장 이요섭)과 공동으로 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세종호텔 3층에서 노건식 메트로폴리스 대표를 초청해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진출(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을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한용수 기자



배덕호 세종대 총장 이요섭 세종연구원 이사장

신입 평균 근속연수 2.8년… 금융·보험 ‘최단’ (2.1년)

사람인, 기업 355개사 설문 중소 4년, 대기업보다 9년 짧아

저마다 포부를 안고 입사한 첫 직장에서의 근속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5일 사람이인 기업 3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입사 후 평균 2.8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5월 기준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신입사원의 근속연수는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은 평균 4년, 30대 대기업(금융권 제외)은 평균 13년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근속연수가 대기업보다 9년이나 짧았다.

성인 이틀에 한 번 편의점 도시락 등 간편식 구매 ↑

대한민국 성인남녀들은 주 평균 3.5회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과 20대의 편의점 이용 빈도가 잦았다.

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남녀 1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주 평균 편의점 이용 횟수는 평균 3.5회였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이용)하는 품목은 식품 류였다. 세부적으로는 ‘과자, 음료 등 간식 류’가 81.2%의 응답률로 1위에 올랐고 이어 ‘도시락 등 간편식’이 60.3%로 2위에 올랐다. /한용수 기자

업종별로 평균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금융/보험’이 2.1년으로 가장 짧았다. 다음으로 ‘기계/철강’(2.2년), ‘전기/전자’(2.4년), ‘정보통신/IT’(2.5년) 등의 순이었다. 반면 근속연수가 높은 업종은 ‘자동차/운수’(4.5년)였으며, 이어 ‘석유/화학’(4.2년), ‘제조’(3년), ‘유통/무역’(2.9년) 등이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신입사원의 근속연수가 ‘짧다’(48.5%)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복수응답)로 ‘연봉이 낮아서’(3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36.6%), ‘입사지원시 생각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서’(25.6%), ‘강도 높은 업무, 야근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21.5%),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20.9%), ‘복리후생이 좋지 않아서’(18.6%), ‘문지마 지원자가

많아서’(14%) 등을 원인으로 생각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의 짧은 근속연수로 인한 피해(복수응답)에 대해 ‘계획된 인력 충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 발생’(54.1%), ‘남은 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44.2%), ‘직장 내 사기 저하’(34.9%), ‘기업 이미지 실추’(11%)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근속연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근무환경 개선’(53.3%)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복지 혜택 강화’(37.8%),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 확대’(34.8%),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34.1%), ‘체계적인 신입사원 교육제도 확립’(25.9%), ‘멘토링 실시’(21.5%)를 들었다. /한용수 기자

천재교육 ‘우등생 해법시리즈’ 6800만부 돌파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은 초등 전 과목 참고서 ‘우등생 해법시리즈’가 누적 판매부수 6800만 부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인구 수가 약 5180만 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평균 1.3권을 구매한 셈이다. 판매된 책을 일렬로 이어 붙이면 약 2만672km로, 지구 둘레 길이(약 4만km) 절반을 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2.2회 운행 거리와도 비슷하다.

우등생 해법시리즈는 1986년 첫 발간됐고, 매년 업데이트를 거쳤다. 교과서 발행사 천재교육의 교과서 집필진과 현직 초·중·고교사들이 책 기획과 구성에 참여해 최신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 매 해 동일한 내용



이 없을 정도로 새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참고서 업계에서는 우등생 해법시리즈는 톨모델로 통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천재교육의 38년 빅데이터를 활용, 출제율과 오답률을 분석한 유형별 문제를 수록했다. 내년에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최근 인기 트렌드를 반영해 ‘크리에이터(인방송 제작자)’ 콘셉트의 표지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